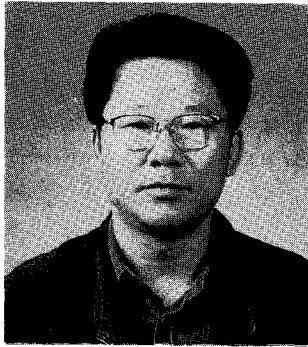


사소한 부주의가 사슴 수명을 단축시킨다



유 일 준
천안 유일동물병원장

신록이 한창이던 5월초 성환지역에서 진료 중에 핸드폰이 울려 받으면 끊어지고, 다시 울려 받으면 끊어지기를 너댓번 한 후 호출기로 상대방 전화번호가 울려 왔는데 지역번호가 없다. 천안, 온양, 공주, 연기 쪽에는 없는 국번인고로 어디서 왔는지 알수가 없다.

병원에 근무중인 사원에게 문의해보니 청양 이란다.

이번에는 일반전화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계속 통화중이다. 10여분 후에 통화가 되었는데 엘크 초산이 3일정도 망을 타더니 아침 7시 경에 다리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오후 3시인 지금까지도 나오지를 못하고 두어시간 전부터는 힘도 안주며 시원치 못해 물이장에 간신히 몰아 넣었다가 탈출한 뒤로는 다시 들어가지 않고 탈출할때 후다닥거리며 어미 사슴이 피부에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옆칸에 있던 5세된 엘크 숫사슴이 놀라 뛰다가 철망에 걸려 낙각된지 50여일 밖에 안된 녹용 양쪽이 모두 부러져 피가 흐르고 축쳐진채 퉁퉁 부었다고 한다.

병원에 돌아와 진료장비를 재점검한 후 떠났다.

운행중에는 전날 비가 온 후여서 더욱더 신록이 아름다워 보인다. 목장 근처에는 갈림길이 워낙 많아서 도착하기 까지 여러명에게 물어야만 했다. 사슴 목장은 지은지 얼마되지 않은 양지바른 외딴 터에 있는 중규모인데 사람들의 통행이 적어서인지 진료차량이 도착하자 사슴이 엄청 나대기 시작한다. 마취준비하는 동안에도 어찌나 날뛰는지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뒤를 따라다니던 주인은 『새끼도 걱정이지만 저놈이 종록인데 폐록되는거 아닙니까? 잘 좀 해주소.』

필자의 대답은 『예. 예. 잘 해드릴게요』를 반복할 뿐이다. 암컷을 살펴보니 신생사슴의 발바다이 하늘을 향한 것으로 보아 역산으로 판단되었고 「키시라질」 2.2cc를 부루건으로 엉덩이에 주사한 후, 즉시 양쪽 각관이 부러진 엘크에게는 3번을 헛탕 친후에 4번째에 목부위에 3cc를 겨우 주사했다.

약간 진정이 된후 5cc를 더 주사했다. 15분후 어미사슴이 곱게 누웠기에 다시 2분을 더 기다리는데 2분이 꽤나 길게 느껴진다.

부루건 대롱에 물적신 수건을 덮으려 하자 어쩔, 벌떡 일어나 버리는게 아닌가. 수건으로 눈을 가리기까지 다시 4~5분이 경과되었다. 함께 있던 다른 암사슴을 다른 칸으로 몰아 내는데 3~4분이 또 경과 ----.

김수의사는 로프로 사지를 짚싸게 보정을 한다. 며칠전에 어미다리를 보정 않았다가 크게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새끼 발목을 잡아보니 싸늘한 감이 돌아 기분이 찝찝하다. 사슴이

먹는 물통에 손을 닦는 동안 주인에게는 건초를 어미 엉덩이 주위에 깔아 줄것을 부탁했다.

산도에 손을 넣어보니 역산이 틀림없다. 뒷다리의 비질을 확인했으니…… 준비된 부드러운 밧줄로 양다리를 묶고 슬며시 뒤로 당기는데 언제 왔는지 쪼그리고 앉아 구경하던 주인집 초등학생과 부딪치는 바람에 둘다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나동그라진 장소는 죽탕이 된곳……

밖으로 조금 더나온 다리를 먼저 당기고 떨어진 다리를 나중에 당기도록 지시하고 당겨보니 꼼짝도 안하던 어미가 버둥대는 바람에 발을 묶어 놓았던 밧줄이 늘어나서 다시 당겨매고 미추부위에 리도카인 5cc를 주사했다. 그런데 어미의 뒷다리가 철조망쪽으로 바짝 누워 있어 당기는데 여간 곤란한게 아니다.

역산일때는 새끼를 당기는 방향을 어미의 뒷다리와 평행해야 하므로 이번에는 어미를 반바퀴 굴려 다시 보정했다. 산도는 태수도 거의 빠진 상태여서 수월하지도 않다.

힘주어 몇차례 당기니 조금씩 새끼가 나온다. 함께 줄을 당기던 주인은 『잘 좀 해 봐요. 어찌 다리가 떨어질 것 같아요. 뼈가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새끼는 틀린 것 같아!』

사실이지 역산할 때 새끼 뒷다리를 당기다 보면 수의사인 본인도 뒷다리가 늘어나는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안나오니 별다른 도리가 없다. 조심하면서 힘을 주어 당기는 수밖에. 악전고투 끝에 새끼를 꺼내니 새끼는 축 늘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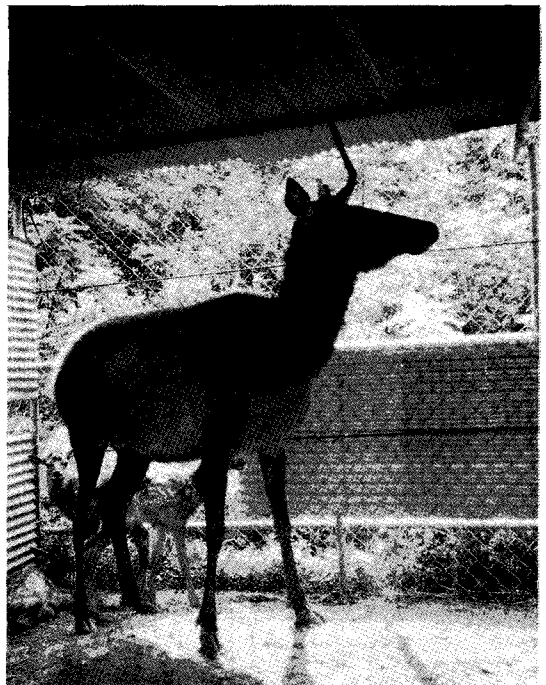
그 모습을 본 순간 주인은 『에이 죽었네』 한다.

그러나 필자는 새끼의 눈동자가 움직이고 심장이 뛰는 것을 보았기에 반사적으로 『새끼 죽은 것 아니에요. 새끼가 왜 죽어』라고 독백하고 말았다. 손으로 코만 닦아주고 엉덩이를 살쩍살쩍 두드리니 10여초후에 「킁」하고 숨을 쉬기 시작한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모두가 합창으로 『살았네』를 외친다. 생존의 기쁨에 대한 표현이다.

어떤이는 『죽은것 같더니 죽은게 아니었네』하고, 한마디씩 각자의 소감을 중얼거린다. 자록의 생존을 확인한 주인은 이번에 어미

가 걱정이 됐는지 눈을 가렸던 수건을 살짝 제끼고 눈에 대고 「후」하고 붙어본다. 어미도 눈을 깜빡이는 것을 보고는 『에미도 괜찮네』 한다. 어미는 보정한 채로 두고 새끼를 어미젖 근처에 옮겨 놓고 젖을 짜서 코에 발라주고 새끼 입을 벌려 초유도 몇번 넣어준 후 주위를 정리하고 일단 사슴장 밖으로 모두 나왔다. 새끼가 정신을 차리면 초유를 빨리기 위해서다.

이번에는 각관이 부러진 솟시슴 차례다. 인공분만을 하는 동안 마취가 잘되어 코를 끌면서 곱게 누워있다. 눈을 가리고 보정을 한 후 검진해 보니 양쪽 모두 각좌가 부러졌다. 상처 부위를 철저히 소독하고 각좌의 피부가 최대한 납도록 하여 절개하니 매달려 있던 녹용이 분리된다. 분리된 녹용은 피가 차 있어 정상적인 녹용과는 달리 통통하고 무게가 무겁다. 절개부분을 소독하고 지혈한 후 방울집게로 뽕족뽕족한 뼈 조각을 정리한 후 지속성 항생제와 연고를 듬뿍 넣어준 후 견사로 봉합했다.



△ 새끼를 분만한 빨달린 암사슴.
(사타구니로 팽창된 유방이 보인다)

다른 한쪽도 마찬가지로 치료했다. 옆칸에서 새끼가 「킁,킁」 우는 소리가 들리고 힐끗

힐끗보니 머리를 들고 꽤나 버둥거린다.

치료광경을 보고 있던 주인은 앞으로의 녹용 발육은 정상으로 될지, 병신이 될지? 걱정이 태산인 것이다.

필자는主人的 심정을 헤아려 편안하게 설명했다.

『상처만 잘 치료되면 올해도 이듬이 나오고 내년에는 올해만은 못하지만 후년에는 정상이거나 정상 이상의 녹용이 생산될 겁니다. 제 경험으로 다쳤던 빨은 대부분의 경우 2년후부터는 정상 녹용보다 생산량이 많아져요!』라고 主人의 표정을 잘 살펴보니 主人은 나의 설명을 반신반의 하면서도 안심은 되는 모양이다. 해독제 「안타고질」을 정맥주사 하니 정상적으로 기립했는데 각좌까지 없어진 그 꼬라서니는 암시슴보다도 더 초라해 보인다.

다시 어머니 사슴에게 돌아가니 신생자록은 원기를 회복하여 버둥거린다. 젖을 짜서 코에 바르고 어머니 젖꼭지에 강제로 입을 대주니 처음에는 거부하더니 젖맛을 보고 나서는 잘도 빨아 먹는다.

그런 중에는 가끔은 버둥거리려 여러차례 젖꼭지를 다시 물려주곤 했다. 이렇게 해야만 새끼가 기력도 빨리 회복하고 어머니가 경미한 수유거부를 해도 약착같이 젖을 찾기 때문이다. 마지막 순서로 태막(양수와 요수주머니)을 새끼 목에 매어주고 어머니에게 해독제를 투여하니 처음에는 새끼를 보는동 마는동 하더니 한시간 후에는 새끼목에 걸린 태막을 핏더니 새끼도 핏어주는데 무언가 불안감을 표시하며 경계심도 표시하고 있다.

다음날 전화해 보니 새끼도 젖을 잘먹고 어머니도 건강하다니 필자도 안심이 되었다.

흔히 분만 보조를 해주거나 난산처리를 하면 어머니가 젖을 안 먹여 새끼를 실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일주일 후엔 숫사슴의 각관을 다시 소독해주었다. 한달이 지난 6월 중순 왕진다녀오는 중에 위의 목장을 방문했더니 새끼도 많이 커있었고 재생 녹용도 담배개비만큼 올라와 있었다.

사양메모

분만시 분만을 보조하거나 난산처리시에는 손에 소독제나 윤활제를 쓰게 되면 아생성으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새끼에게 젖을 안먹이는 것이 대부분인 바, 평소먹던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다른 약품이나 냄새가 나는 것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어머니에게도 산도 소독이 필요한 경우 분만후 2~3일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분만 직후에는 즉시 어머니젖을 짜서 어머니젖 자체와 새끼의 코에 발라 주는 것이 좋다. 초유가 너무 적게 분비될 경우 옥시토신 0.5~1ml를 어머니에게 정맥주사 하면 충분한 양의 초유를 먹일 수 있다.

태아가 이미 산도내에서 폐사되었을 경우에는 소독제를 사용하여야 하고 어머니에게 항생제를 투여해야 한다.

철곡 S목장에서 있었던 일

5월말 어느날 아침 『일주일 전에 절각한 사슴이 호흡이 가쁘고, 코에서 흰색 코가 흐르고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며, 물을 많이 먹는데 조사료나 곡물사료는 전혀 안먹고, 대변은 아주 소량으로 나오나 오줌은 많이 나오는데 절각할 때 머리가 경사위 방향이었고 아주 소량으로 구토가 있었다』한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시골길을 지나 목적지까지 세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 목장은 엘크만 사육중이었는데 숫사슴의 거위가 수입사슴이었다. 지난 겨울에도 이 목장에서는 한마리가 기립불능으로 폐사된 적이 있어 조심스러웠다.

주인 어른과 관리인으로부터 병력을 들으며 망진을 해보니 폐렴이 확실했다. 절각전엔 절식도 시켰고 채혈도 적게 했으며 다만 머리가 경사방향위로 있었고 침도 거의 안흘렀다고 한다.

아픈 사슴치고는 활력도 있어 보였다. P마취제 2cc를 마취하고 가슴부분을 청진해보니 머리카락 비비는 소리가 나고 맥박은 빠른 편이었다.

코쪽에 냄새를 맡아보니 고기 썩는 냄새가 난다. 오연성 폐렴이 의심됐다. 심각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치료제로 대량의 P.P.S, 설파제, 소염제를 주사했고 식욕촉진제와 위운동 촉진제와 기관지 확장제도 써 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영 예감이 좋지 않았고 다음날 전화해 보니 전혀 차도가 없고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것 같다고 한다.

3일째 다시 왕진하여 보니 병은 차도가 없었고 음료수 통에는 물먹을 때 흘린 코와 농이 여러군데 떠 다니고 있었다.

최초에 사용했던 치료제를 증량 투여했다. 입을 벌려 개구기를 삽입 후 카테터를 통해 전해질과 유산균 영양제 등을 조심해서 먹여 주었다. 사실이지 카테터를 이용해 약물을 투여하다 카테터가 기관으로 들어가면 백발백중 즉사하기 때문이다. 죽을 때는 죽더라도 살려 보자고 주인이 수의사를 위로한다. 수의사가 주인을 위로해 드려야 할텐데 말이다.

2일후 왕진을 갔을때 잘 움직이지도 않고 호흡이 너무 어려워 입가엔 거품을 많이 물고 있다. 입거품을 본 순간 『틀렸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집안으로 들어가 주인과 대화를 하는데 주인도 『죽을 것 같으니 치료를 안하는게 좋겠다』고 한다.

그로부터 20분후 사슴은 앉았다 일어섰다가 반복하더니 숨을 거두고 말았다. 입에서는 이상한 색깔의 액체가 냄새까지 난다. 사슴은 죽었지만 수의사로서 오기가 발동해 주인의



△ 폐에 염증이 심하여 구멍이 생겼고, 폐의 염증으로 말미암아 폐와 늑막이 유착되어 늑막부위에도 염증이 보인다.(갈비부분의 푸른 점들이 보인다)



△ 오연성 폐염으로 폐에 생긴 심한 염증이 파열되어 구멍이 뚫려 있다.(줄자의 상하부분)

양해를 얻어 부검을 했다.

부검을 해보니 이 사슴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의심이 갈 정도로 폐가 썩어서 군데군데 구멍이 나있고 늑막까지 유착되어 있다. (사진참조)

사슴의 폐는 정상의 10배 정도로 부은 상태로 부패되어 있었다. 폐가 구멍 난곳을 자세히 보니 위 내용물이 보인다. 결과는 오연성 폐렴임이 확인되었지만----

아쉬움이 크다. 이 사슴은 매장할 수 밖에 없었다.

절각시 유의사항

절각하는 위치가 평지가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경사가 진곳이라면 사슴의 머리는 경사 아래부분으로 위치해야 마취동안에 흐르는 침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으며 구토를 해도 오연성 폐렴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사슴의 경우 위의 원칙을 안 지키는 사소한 부주의로 사고가 나서 사슴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공주의 C씨로부터 엘크 한마리가 75일전에 한쪽은 낙각이 정상으로 이루어져 녹용도 5kg 정도 되었는데 한쪽은 낙각이 안되어서 뿔이 기형이 되었고 농이 흐른다고 왕진 요청이 왔다.

이 사슴은 작년 절각후에 약간의 염증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움직여 주르

로 설마 관찰했지 하고 방치해 버렸다. 그러나 실제로 주인이 알고 있는 것보다 염증이 심각했던 것이다. 정상적인 빨은 발로 건드리지 않고 사타구니에 비벼대는데 이 빨은 염증때문에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 발굽으로 긁고 또 긁어 녹용이 조금자라면 발굽으로 뚫개버리곤 했던 것이다.



△ 절각후 염증으로 인해 골질부분이 비후되어 녹각 부분에서 아래로 가골이 형성되어 마치 버섯형태로 된 골염부위

그래서 피가 범벅이 되었고 퐁퐁 부어 있었다. 마취후 수술하지 아니하고 낙각시키려고 했으나 땀만나고 끽대기만 했지 떨어지지않는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리도카인으로 각관을 마취시키고 각관을 수직으로 절개하여 끌로 파내는 수 밖에----

처음부터 끌로 파내기가 뭣해서 녹각된 부분을 끈으로 묶고 비틀었더니 중간이 툭 부러져 버린다. (사진참조)

부러진 부분부터 다시 3cm 가량의 깊이에는 농양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다시 3cm 가량은 끌로 파낼수 밖에 없었다.

이때 피는 왜 그리 많이 흐르는지!----

웬지 아까운 생각이 든다.

염증으로 뼈가 푸석대는 곳까지 제거하니 깊이가 담배길이 보다 깊다. 작년에 조금만 신경썼으면 이렇게는 안되었을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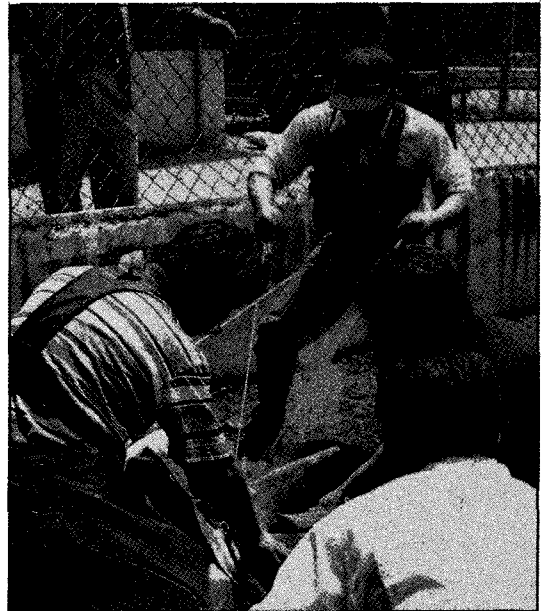
설마가 사슴 고생시키고 한쪽 빨마저 훔쳐간 것이다.*

<진료문의 및 상담>

- 전 화 : (0417)565-5297
- 핸드폰 : 011-423-5297
- 호 출 : 012-412-1409

<바로 잡습니다>

지난 5·6월호 65페이지 왼쪽 위에서 7번째 줄중 「5cc를」 → 「0.5cc를」로 바로 잡습니다.



● 포커스

녹용절각 장면

보통 농가에서 녹용을 절각할 때 일반 톱을 사용하는데 반해 줄톱으로 절각을 하고 있는 장면.

줄톱으로 녹용을 절각하면 녹용 부스러기도 거의 나오지 않고 녹혈도 잘 새지 않는다고 한다.

올해 우수사슴 현장조사 과정에서 특이하게 줄톱으로 녹용을 절각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한 컷 촬영을 시도했다. (1997.6.2 충남 공주에서)